



“살 만 합니다”

최근 주일대사 임기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 온 분이 귀국 첫마디로 '외국에서 대사로 지내면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국제적 위상도 높고 여러 부문에서 인정받는 아주 괜찮은 국가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너무 우리나라와 국민을 평가 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인색하고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고 있지않나 한번쯤 뒤돌아 봄직하다.

결핍하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제대로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국가니 민족이니 하면서 스스로를 폄하하는 일에도 주저하지 않는 경우도 쉽게 만나게 된다.

이와함께 해외에 살고 있는 교민들도 고국에 대한 인식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배어있다. 시민권이나 외국 국적을 갖고 해외에 살고 있는 친지들이 요즘 전화를 걸면 으레히 '한국에서 어떻게 사느냐?' 는 걱정아닌 걱정을 하곤한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늘 '살 만 하다' 로 이어지곤 한다.

특히 외국에 소개되는 우리나라의 각종 '긴박감 넘치는' 뉴스를 접하면 무슨 큰 일이 날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한국 국민들은 비교적 여유(?)있게 사태를 지켜보는 것 또한 현실인 것이다.

사실 선진국들도 부정적인 요소를 파고 들면 우리나라 못지않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큰 차이점이라면 선진국들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빈도가 낮고 국가와 사회발전을

향한 공감대 형성과 추진이 우리를 앞지르고 있는 점 등이다.

인쇄업계의 예를 보더라도 해방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해결하지 못한 고질적인 병폐도 안고 있기는 하지만 짧은 기간에 이루어 놓은 긍정적인 면도 적지않다.

인쇄시설은 세계 최고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국산 용지, 잉크 등 원부자재의 품질도 크게 향상되고 있는 등 그 어느때보다 높은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인쇄경영인들의 사명감과 자신감 그리고 종사자들의 전문가를 지향하는 의식구조변화가 뒷받침 된다면 성장의 대폭발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T S엘리오프는 '4월을 잔인한 달' 이라고 읊었지만 4월은 만물이 생동감을 갖고 피어나는 계절이기도 하다.

인쇄인들이 아무쪼록 밝은 얼굴과 열린가슴으로 긍정적인 생활분위기에 젖어드는 일 들이 늘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누가 뭐라해도 대한민국은 아직 지키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조국이고 우리는 어떤 충격과 고난도 극복하고 반만년 역사를 이어 온 단일 민족이 아니던가?

그저 답답해서 최면을 걸어보는 구호가 아니라 역사와 교훈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부여한 실현 가능한 과제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엘리오프는 '4월을 잔인한 달' 이라고 읊었지만 4월은 만물이 생동감을 갖고 피어나는 계절이기도 하다. 인쇄인들이 아무쪼록 밝은 얼굴과 열린가슴으로 긍정적인 생활분위기에 젖어드는 일 들이 늘어나기를 기대해 본다.